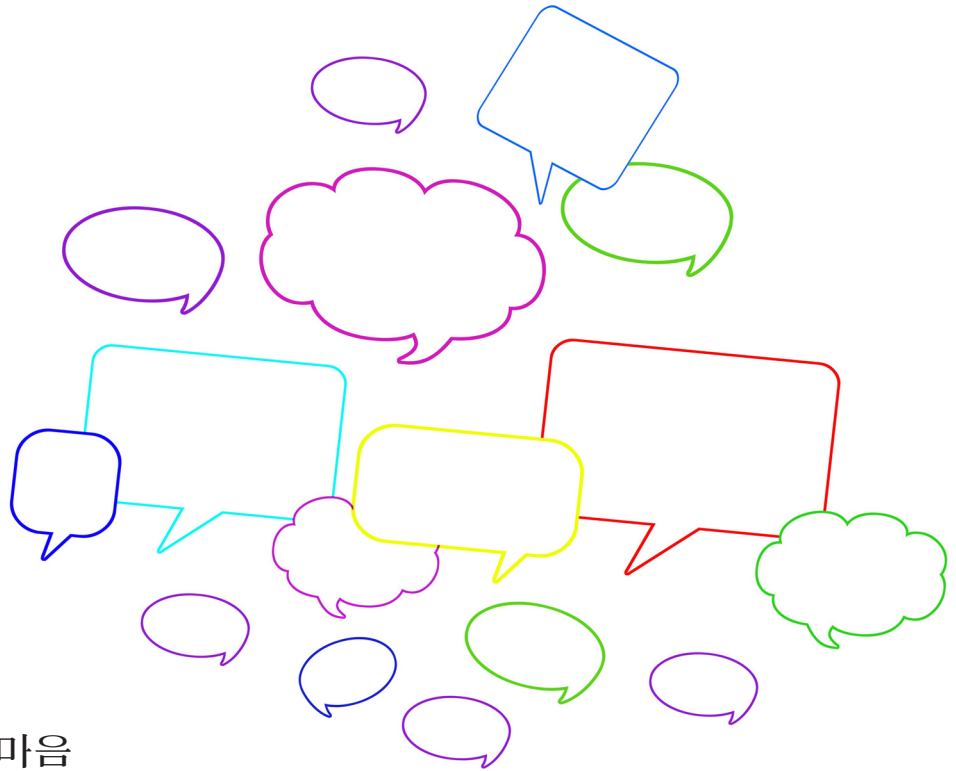




2013. 3월(제18호)

# 오인회 소식



발행인의 말

## 완결지으려는 마음

우리의 의식은 완결지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 안다는 느낌을 느끼려 한다.  
안다는 것은 완결지어졌다는 느낌이다.

왜 완결지으려 하는가?

완결짓고 바로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완결지어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긴장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완결을 위해 열려있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완결로 인해 우리는 '고정'된다.  
더이상 생생히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안다'는 느낌에 갇혀있지 말고  
생생히 살아있으라.

## <하루만에 자유로워지기> 실험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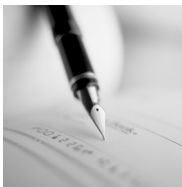
- (1)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 (2)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며,
- (3)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메카니즘mechanism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 (4)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고통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 (5)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알아차림을 통하여 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과
- (6) 간단한 알아차림을 실생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삶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내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안되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강의장을 떠나실 때는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의 마음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고, 모든 것을 여여하게 보실 수 있기를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 강사 : 우현
- 시간 : 3월 30일(토) : 오전 10시 ~ 5시
- 장소 : 미내사 서울 강의장
- 참가비 : 없음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2-747-2261로 전화주세요.



### '나' 란 두뇌가 만든 것이다 \_ 법계 인터뷰(하)

법계님은 대학에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1차 깨어있기에 참가한 이후 꾸준히 오인회에 참여하여 자기탐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법계님을 만나 개인적인 탐구의 여정과 뇌과학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행복감을 오랫동안 계속 느낀다면 처음 행복감을 느낀 것과 같이 똑같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자꾸 느끼다 보면 행복감의 정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 버려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두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되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전달물질을 투여하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잘 안 믿다가도 그 주사를 맞으면 믿게 된다는 뜻이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두뇌의 동작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자극으로 일어나는 행복감이 계속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극에 주어진 주의집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의 집중을 한 자극에 계속해서 묶어둘 수 있다면 행복감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렵습니다. 주의집중은 자연스럽게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에 원하는 아파트를 사고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행복감을 느끼다가 점차 떨어진다 고 하셨지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두뇌는 오감을 통해 자극을 받아들이며, 시상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걸러냅니다.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보상중추가 자극되어 행복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상에서 이 신호가 보상중추를 자극하기 전에 그 신호를 다 걸러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진화의 과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후예들이고, 밀림에 살



던 조상들은 쓸데없는 곳에 주의를 쫓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자가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는 나무만 보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사자를 추적하는 사람도 있었을텐데, 그럼 우린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사자를 추적하는 조상의 후손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의가 언제나 변하는 쪽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과 아까 말씀하셨던 디폴트 네트워크 default network라는 개념, 그리고 믿음이라는 현상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것도 두뇌의 동작과 관련이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신문을 보면 사회적으로 용인 안 되는 사건에 대해 거부감이 들지요. 거부감이 확 올라올 때 에너지가 그쪽으로 확 끌려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러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나 자체가 그런 믿음과 완전히 동일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믿음을 빼면 중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부하는 느낌도 별로 없어지지요. 그리고 믿음이 두뇌의 동작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나의 믿음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두뇌에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신경망 부분을 디폴트 네트워크 default network라고 해요. default network는, 이를테면 우리 몸이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혈액순환, 호흡 컨트롤 등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최근 뇌과학 논문 중에 믿음과 default network activity(디폴트 네트워크의 신호수준)의 관계에 관하여 밝힌 것이 있었어요. 믿음을 별로 안 가지면 default network activity가 떨어지고 믿음이 강하면 default network의 신호수준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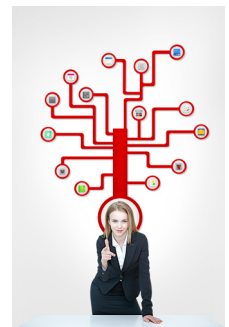
‘깨어있기’에서 믿음의 에너지 레벨을 다루는데 그것이 default network의 신호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생각한 건 그 default network 신호수준을 읽어내면, 예컨대 “저 사람은 나쁜 놈”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호를 스마트폰 같은 것에 전달하면, 내가 “많이 믿는 것”과 “적게 믿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이 믿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심전도가 혈압을 알려주듯이 default network가 믿음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아직 그런 장치는 세계적으로도 없고, 아주 최근에 나온 이야기라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어찌되었든 에너지를 주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래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과 “믿음이 별로 없는 것” 사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살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금 언급하신 논문에 따르면 ‘깨어있기’에서 다루는 믿음의 느낌과 그 에너지를 다루는 것을, 믿음에 따라서 신호수준이 달라지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의식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두뇌의 동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믿음도 마찬가지로 두뇌의 동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두뇌의 어떤 동작을 체크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근원은 다릅니다. 과학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고, 의식의 근원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인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식의 근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 과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즉 참나를 상징하는 대문자 Self(의식의 근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챘다 하면 그건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알아챘다고 하면 거기에는 subject와 object가 나타났다고 봐요. 미묘하게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식이 된 거죠.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미묘하게 가보면 그냥 소리가 있고, 뭐가 있고, 존재, Being 그 상태까지는 갈 수 있죠. 하지만 Being 그 자체도 궁극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노력하면 갈 수 있겠지요. 저는 평소에 자주 Being 상태에 머물지요. 주의제로 상태.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문자 Self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궁금하지는 않으시고요?**

저는 결국은 두뇌구조가 변형을 일으켜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두뇌구조가 거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확실하게 몸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 뇌과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많이 약화되었지요. 또 전에는 누가 나한테 약간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화를 벌컥 내고 했는데, 지금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게 되었구요. 그것은 두뇌구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또 전에는 죽는 과정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두뇌가 손상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두뇌의 작용들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의식의 근원Subject은 과학으로 접근이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데, 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뇌 과학에서는 그것과 관련하여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은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화할 대상도 아니고, '무슨 경험을 했다' 이 말은 인식을 했다는 것이므로 아니라는 것이죠.

과학이 다룰 수 있는 object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요. 뇌과학을 통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었지요. "나란 것도 두뇌가 만들었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화라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두뇌의 오동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지요. 옛날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행복은 습관이다" 하고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이해하고, 믿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의식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식의 근원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NCC(neural correlated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이 있을 때 두뇌의 어느 부분이 동작한다는 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의식이 나오느냐? 컴퓨터 만들 듯이 NCC를 만들면 의식이 나오는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식의 근원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처까지는 과학이 연구할 수 있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인회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해주신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뇌과학으로 접근해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치매 노인이 식사 후 돌

아 앉으면 식사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이를 두고 부모님께 식사를 안 준다고 자식간에 싸우기도 하고, 남녀간에 인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운전 못한다고 부부간에 싸움을 벌여 이혼하기도 하지요. 알고 보면 이런 오동작이 엄청 많아요. 앞서 설명한 화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에도 엄청난 오동작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두뇌의 동작을 이해하면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습관화된 우리의 신경망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한 수련과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바뀔 수 있고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치관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화나는 것과 같이 감정을 다루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다 하는 믿음 자체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련과 함께 뇌과학을 곁들여 공부하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얻고자하는 행복감도 스위치를 조작해 이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래?"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가?", "행복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경과 의사 K. Nelson이 지은 「The Spiritual Doorway in the Brain」(우리말 번역서는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신비현상을 뇌과학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깐요.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오인회 원격화상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계신 법계님과 성암님, 여수에 계신 지원님, 그리고 칼라님께서 꾸준히 참가하고 계십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메라와 스피커가 갖추어진 컴퓨터를 준비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화상통화 시스템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참가비는 매달 10만원입니다.

**법계님이 추천하는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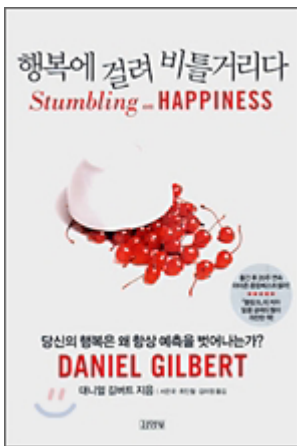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 살아있는 동안 꼭 생각해야 할 34가지 질문**  
리하르트 다비드 프레히트 / 21세기 북스

구태의연하고 추상적인 철학사적 접근법을 배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근본 물음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재 지향적인 철학 입문서이자 인문교양서이다. 저자 프레히트는 임마누엘 칸트의 의미심장한 전례를 따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슨 희망을 노래해야 옳은가?” 라는 3부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여러 의미에서 새롭고 재밌으며 실용적이다. 첫째, 21세기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존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나’를 질문한다. 둘째, 오늘날에 의미를 가지는 철학자와 심리학자, 인류학자, 뇌신경학자 그리고 과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가장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새로운 답을 함께 검토한다. 셋째, 인류 지성의 현장을 답사하듯이 둘러보면서 생각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여행’으로 모두를 초대한다.



**코스믹 게임 : 인간 의식의 심층에 감추어진 존재의 비밀**  
스타니슬라프 그로프 / 정신세계사

철학에서 분리된 이후 인간 의식의 다양한 영역을 탐구해 온 심리학 중 4세대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4세대의 심리학으로 ‘자아초월 심리학’ 또는 ‘초개아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학파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4세대 심리학은 유물론적 과학의 편협한 잣대를 내던지고 인간 의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자 시도한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미래의 심리학을 이끄는 열정적 연구자인 저자가 인간이 변성의식 상태에서 겪는 놀라운 체험들을 60년대부터 조사해 온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대니얼 길버트 / 김영사

영국왕립협회 선정 '올해 최고의 과학도서(this year's best science book)'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면 행복해질까? 오랫동안 버리고 별려왔던 새 자동차를 사면,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사면, DMB기능이 장착된 휴대폰을 사면, 짝사랑했던 그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면, 목표로 하던 대학이나 직장에 당당히 합격하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초고속으로 승진하면 행복해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막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만큼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이 책에 따르면, 우리의 상상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새 자동차를 사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그 상상 속에는 잔소리하는 상사, 돈 빌려 달라는 친구, 퇴근길의 주차전쟁이 빠져 있다. 연인과 헤어지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들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을 예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잘 지낸다.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심리면역체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이별을 했는지 몰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원정 1승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뇌가 이런 작업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호부터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승기신론 강의를 연재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중간 중간 빠졌던 오인회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승기신론의 핵심은 중생심이 곧 보리심이며, 모든 존재는 의타적(依他的)이라는 점인데,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그동안 빠졌던 분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에 계속 참여하시면 됩니다. 글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마명(馬鳴)이라는 인도인이 쓴 글로, 원효대사가 소(疏)를 달면서 유명해진 글입니다.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로서 제목에 믿을 신(信)자가 붙은 재미있는 글입니다. 대승은 마하야나(mahayana)라는 범어(梵語)를 번역한 것으로 큰 수레를 의미하며, 많은 중생들을 실어서 저 피안(彼岸)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신(起信)은 일으킬 기(起), 믿을 신(信)으로, 대승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大乘)은 큰 수레라는 은유적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나 생명과 의식의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서는 “대승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요하며 적막하고 깊고도 그윽하다. 깊고도 또 깊으나 어찌 만상의 박을 벗어나겠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나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말속에 있다.(夫大乘之爲體也 蕭焉空寂 湛爾冲玄 玄之又玄之 豈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引之於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에 두려하면 만물이 이를 타서 생성되니 무엇이랴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대승이라고 이름하였다.(一如用之而空 獲之於無 萬物乘之而生 不知何以 言之 強號之謂大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승은 자기 자신만 깨우치고 마는 것에 초점을 두고, 대승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생들, 모든 인류와 생명체까지 다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대승의 의미는 그러한 수레의 의미이기보다는 생명력의 본질, 의식의 본질을 이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입니다. 제목이 무척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믿음(信)과 의식의 본질(大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설파한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우친 석가모니의 믿음이 있고, 다음으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향해 굳건하게 멈추지 않고 가는 불퇴전(不退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다시 돌아서고 다른 길로 가고 왔다갔다 하는 퇴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승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통찰을 이룬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기(起), 즉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기신론의 본뜻입니다. 앎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가면 결국은 믿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앎이라는 것은 믿음의 일종이에요. 믿고 있는 것이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것도 일종의 의식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상이란 드러났다는 것, 나타나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보여진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깨우침은 진리를 통찰한 믿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즉 주입된

생각을 믿어버리는 믿음이며, 또는 그 진리를 향해 끊임없는 탐구의 마음을 내는 불퇴전의 믿음이나, 가끔 멈추며 뒤돌아가는 퇴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는 불퇴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반면 가다가 쉬고 가다가 멈추고 하는 퇴전의 믿음, 즉 후퇴하는 믿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신(信)은 바로 그 세 가지 믿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명은 깨우침도 일종의 신(信)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소승(小乘)은 혼자만 깨닫고 말죠. “세상에 나와 너가 어디 있는가? 깨달은 ‘자’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누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승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도 없고 깨닫지 않음도 없다는 관점입니다. 금강경 제9장 一相無相分에 보면 석가모니와 수보리의 유명한 대화가 나오지요. “수보리야,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아라한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 수보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무명(無明)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대승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승은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는 것입니다. 심진여문은 말 그대로 마음이 곧 진여라는 뜻인데요, 즉 마음의 참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도 없고 더우기 있을 수도 없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나지 않지도 않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심생멸문은 마음이라는 것은 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며, 태어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대승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소승은 주로 심진여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본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승은 부처의 마음인 본질과 중생의 마음, 즉 생멸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 맨 처음에 중생심(衆生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뇌(煩惱)가 보리(菩提)고 중생이 부처고 일상이 초월이고 절대가 상대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를 향해서만 가지 않고 절대와 상대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고요 속에서 움직임 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고요를 향해 갑니다.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하는 사람은 고요함으로 갑니다. 평화를 향해 가려고 하지요. 고요와 평화를 향해 가는 마음은 움직임과 소란스러움을 제외한 반쪽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반대되는 한 ‘상태’일 뿐이지 진짜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마

**대승기신론의 구조**

**인연분(因緣分)**

아무 이유 없이 이 논을 지은 것이 아님을 보여줌.

**입의분(立義分)**

인연이 설명된 후 이제 이 논 의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한 장으로서 이 논 의 핵심이 간략히 들어 있음.

**해석분(解釋分)**

이 논 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음.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논을 이해했으면 실천을 해야 하므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음.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

상근기가 아니면 수행자체를 즐기기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를 생각해 움직이므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여줌.

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마라즙(鳩摩羅什)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 많은 불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깊은 통찰을 지녀서 아주 훌륭한 몇몇 제자를 두었는데 그중에 승조법사(僧肇法師)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조론(肇論)」이라는 책에 보면 “고요함을 움직임 속에서 찾아야(必求靜於諸動) 진정한 본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요함을 움직임과 반대되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찾을 때 진짜 고요와 움직임이 다르지 않으며 동과 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동과 정이 일어나는 본질을 꿰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논문입니다. 논(論)은 논문이죠. 논문은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이 쓴 글이라기에는 매우 과학적이고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풀이한 재미있는 글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인연분(因緣分)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것을 쓴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당신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뭘 덧붙일 게 있어서 이 글을 썼느냐’고 누군가 마명에게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이유가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어떤 사람은 아주 짧고 압축된 글을 통해 쉽게 받아들이며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좋아하는 등 사람의 기질과 근기와 깊이가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 바로 인연분입니다.

두 번째는 입의분(立義分)인데, 인연분에서 이 글을 쓴 이유를 설명한 이후에 바른 뜻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서 이 논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철저히 스스로 탐구하면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승기신론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하고 풀이해놓은 것이 세 번째 장인 해석분(解釋分)입니다. 이 해석분에는 이 논의 상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은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인데 이 논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수행신심분입니다. 신심을 일으켰으면, 즉 믿음의 마음을 일으켰으면 이제 수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장이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인데, 상근기(上根機)의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을 위해 매진하지만, 중하근기(中下根機)라면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권수이익분입니다. 이 권수이익분에서 말하는 상근기는 수행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탐구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늘 말하지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기를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그만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명이 마음을 내서 권수이익분을 썼어요. 이것을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권수이익분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다음 계절수업은 5월 25일(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오인회 분들의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 5월 4일(토)에는 비폭력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747-2261)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길로1만4천원/류창형 3만원/여행 1만원)